

지혜의 말씀

불기 2567년 3월 / 통권 505호



대한불교조계종 신해대광사



시와 불교의 만남

법구경 (法句經)

013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014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권력 비정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화도만리(花道萬里) / 무경스님

관음전 불사 권선문 · 11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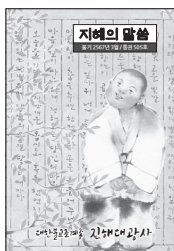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용왕재 기도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제 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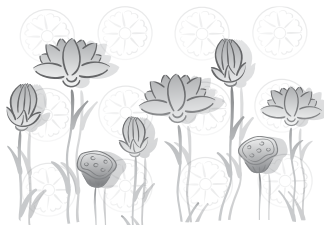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설희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권력 비정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권력은 돈보다 더한 집착을 일으킨다. 권력에 눈이 멀면 부모도 자식도 희생양으로 쓰고 친구도 형제도 외면 한다.

‘태종’은 수많은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고 왕권을 차지했다. ‘세조’는 어린 조카에게 사약까지 마시게 하는 비정을 자행하면서 왕좌에 올라섰다.

인도의 ‘아쇼카’는 아홉 형제를 죽이고 다른 더 많은 형제들을 권력 주변에서 얼씬 못하게 한 뒤에 피바람을 멈추었다.

중국의 최초 여황제 ‘측천’은 왕권 유지에 걸림이 되는 아



들을 돌이나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우리들의 근대 정치사에서 독립운동의 목숨 건 동지였던 상대를 가차 없이 암살하면서까지 정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쳤던 인물이 있기도 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정적 제거 작업은 더 냉혹하고 비정하다. 그만큼 권력이 지니는 힘이 크기 때문이며 맛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말속에

"권력과 돈과 색은 중독성이 강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로부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했다.

권력 때문에 이성을 잃고 친구를 배신하고 동지의 의리를 저버리고 부모 형제의 정을 배반한 경우는 허다하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한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한나라의 왕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할 처지였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도움을 준 동지 한신조차 왕권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끝내 죽이고 만다.

한신은 죽으며 한마디 하는데 옛 월나라 왕 '구천'의 재상이었던 '범려'가 물러나면서 했던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한다.

"권력은 칼에 발린 꿀과 같은 것이다."는 말과 같이 달콤한



맛이 있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에 내몰리고 비정하게
배신당할지 모르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또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와 같다." 하기
도 했다. 칼을 잘 쓰면 더없는 식용 도구가 되지만 잘 못 쓰
면 자칫 생명을 잃는 위험을 부를 수도 있다.

우리의 지금 정치 현실이 의리도 도덕도 한 톨어치 없이 모
략과 중상과 이해충돌만 난무하고 있다. 술한 역사 속의 그
쳐잡하고 처절한 장면이 재연되고 있음이다.

이렇게 나라의 정치가 앞도 뒤도 없는 혼란에 휩쓸리고 의
리도 도덕도 없이 흘러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
우며 어떤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희망적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흔쾌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꿈을 가질 텐데 말
이다.

정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모으는 대상이다. 나라의 운명
을 좌우할 결정적 힘을 지닌 집단이다. 정치가 잘 못 흘러가
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풍부한 자원과 좋은 역사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
치가 잘못되어 한순간에 나라가 빈국으로 추락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사례는 수없이 많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며 애를 써도, 종교인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이끌어도, 내지는 다른 어떤 집단의 노력도 정치의 영향력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정치인들이 무너트릴 수 있다.

당 이름을 수도 없이 바꾸면서 새 정신으로 새 정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철새같이 당을 이리저리 갈아타며 그때마다 그럴 듯한 약속을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 국민을 속인 배신행위다.

오늘 아침에도 한숨 터지는 소식이 신문의 1면을 채우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보았다. 제발 희망적인 정치권 소식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머리 소식에 정치권 소식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 매양 김빠지는 소식 뿐인데 왜 꼭 앞 소식으로 전하는지 모르겠다.



화도만리(花道萬里)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경칩이 아직 멀었음에도 개구리 나와서 울고, 춘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이처럼 절기를 거스르는 대자연의 작은 실수는 관객들로 하여금 곧 있을 봄소식에 마음이 설레게 한다. 특히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에서 잠시라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필자 역시 봄날이 되면 진해를 떠나 있어도 진해와 벚꽃이 생각났다. 향이 없는 봄바람이건만 그 산뜻함을 온몸으로 만끽하면, 달 밝은 밤 홀로 대광사 뒷편 벚꽃 길을 걸었던 추억에 심취한다.

벚꽃은 낮이 되면 폭발적인 화려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밤이 되면 특유의 신비함으로 오감을 이세계로 이끄는 듯하다.

달빛을 머금고 밤하늘 은하수처럼 떨어지던 꽃잎들...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다운 그 꽃을 보노라면, 우리의 만남과 이별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의 내면에서 끝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과 추억과 경험은 씨앗이 되어 마음이라는 광활한 대지에 심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심어진 과거의 씨앗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의 현상을 봄비처럼 맞으며 다시금 새싹이 자라나게 한다. 약초 심은데 약초 나고, 독초 심은데 독초 나듯이 말이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행복을 느낀 사람은 미래에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도우려는 착한 마음을 내게 되고, 남을 괴롭히는 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미래에도 자신 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잔인하게 괴롭히려는 나쁜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은 마음으로 짓지만 그 과보는 몸으로 받는다’ 고 하셨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날에 꽃길이나 풀밭길도 되고, 가시밭길이나 나뭇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겠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레드 카펫 위를 걸듯이, 자신의 몸과 입과 생각을 복되게 가꾼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 밭에 한번 뿌려진 악의 종자는 좀처럼 없애기 힘들다. 마치 잡초처럼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라나고, 잠시 게으름을 피우면 장마철 잡초처럼 손 댈 수 없을 만큼 번져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짬을 내어 잡초를 뽑거나, 아니면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날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뽑아야 한다.

마음을 복되게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에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농부가 자기 밭에서 난 곡식을 판매하여 부유함을 누리듯이, 우리도 자기 마음으로 지은 복만큼 다가올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기 마음의 밭을 복되게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광사에서 봄·가을로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7일간 기도를 하고, 여름에는 백중 49일 동안 하루 3번 두꺼운 지장경을 읽고, 겨울에는 10일간 자비도량참법을 봉행하는 이유도 우리 불자들의 앞날을 꽃길로 장엄하기 위해서이다.

수년간 전세계를 몸살 나게 했던 코로나도 이제는 겨울날 유행하는 감기 정도로 약해졌고, 산길 바닷길 하늘길이 활짝 열려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축복하고 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어느새 시작의 계절인 봄이 된 것이다.

봄 햇살이 잠들어 있는 대지를 깨우고, 봄바람이 산천초목에 새싹을 틔우듯이, 계묘년 봄날을 맞이하여 불자님들 모두 잠들어 있던 신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대광사로 자주 나들이 하시어, 현생과 래생을 꽃길로 장엄하는 기도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라본다.



「관음전 불사 권선문」

대광사가 현재 위치에 산문을 연지 벌써 40여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주지 스님도 운성, 탄경, 자경, 서경, 무경 스님을 지나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여러 중창불사를 했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부처님 법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관음전 건축 부지 문제를 해결하여, 오랫동안 사부대중이 염원하시던 관음전 불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9평 규모로 지어질 관음전은 관음의 소리를 들어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자성의 공간’이자, 거룩하신 관세음의 모습을 닮아지는 ‘기도의 전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을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주저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가피를 빌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본분이라 감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대광사 관음전이 불자님들의 기도와 자성의 수행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2월

회주 설담운성 · 주지 무경 합장

관음전 불사 동참계좌
수협 2010-0909-2481(대광사)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용왕재 기도

- 일 시 : 3월 13일~15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가족축원)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3월 5일 :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입재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3월 6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11일 :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회향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3월 13일 : 용왕재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15일 : 용왕재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2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4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9일 : 불교대학 21기 신도기본교육 회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 일 시 : 3월 5일~11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5만원(가족축원)



대광후원회

(2023.1.19.~2023.2.18)

홍승은 2만원	윤숙희 2만원	정대식 5만원	박진호 10만원
변창인 2만원	박미애 1만원	오현철 2만원	(주)카텍홀딩스
황두관 1만원	김병문 2만원	강성진 1만원	60만원(2개월)
송성수 2만원	이병정 3만원	조한분 5만원	
정진이 1만원	이봉희 2만원	배동환변호사 5만원	
김경남 2만원	이인숙 2만원	열정영어 8만5천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문병학 3만원 / 임금록 2만원 / 송민기 2만원 / 오현우 5만원 / 이정배 3만원
이용원 6만원 / 양재봉 1만원 / 김용근 6만원

♥ 설담장학회

회주스님 1천만원 / 주지스님 10만원 / 이현실 50만원 / 변지오 1만원
윤숙희 5만원 / 문미화 10만원 / 김순남 1만원 / 이봉희 5만원

♥ 관음전

하형규(자비행) 500만원 / 최덕희 100만원 / 김성호 10만원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佛紀 2567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3년 2월 28일~3월 29일	2023. 4. 4(화) ~ 11. 29(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3년 4월 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 2023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1학기 200,000원 (교재비, 범복, 성지순례비 포함)
불교대학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총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